

# 종이증권 역사속으로... 5년간 직접적 경제효과 9045억

## 전자증권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추석 연휴기간 중 이행 작업 완료  
운용비용 절감·사무일정 단축 기대  
경제효과, 회사·투자자에 효율적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종이증권이 사라지는 효과로 인해 향후 수 천 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변조 사고 예방, 탈세와 음성거래가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전자증권시스템 이행작업에 한창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행 작업을 완료한 후 안정성과 보안성을 최고 수준으로 갖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사 비상대응체계 또한 가동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를 시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작으로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도입한 제도다. 이에 한국도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 ◆현재 종이증권 회수 상황은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대 시행에 앞서 실물증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왔다. 1차적으로 지난달 21일까지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하는 방법을 공지해왔다. 또 오

는 11일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실물증권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까지 실물증권이 예탁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 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로 등록된다.

실물증권이 예탁된 비율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약 99.4%에 달한다. 지난 1월 말 97.6%를 기록했던 예탁비율이 다양한 홍보활동과 증권사들의 협업

으로 더 올랐다. 현재까지 예탁되지 못한 주식은 상장주식 5.5억주, 비상장주식 5.1억주로 총 10.6억주가 비예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는 11일까지 대행기관에 예탁을 하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 ◆경제절감효과 '수 천억대'

전자증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다. 실물증권 관리 업무가 줄어들면서 운용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한 결과 연평균 1809억원을 절감해 5년 누적효과로는 904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경제효과는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이다.

발행회사는 발행절차, 회사채 발행 기간, 원리금지급기일, 권리행사 일정 등을 단축하면서 자금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관련된 경제적효과는 2619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자금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이 없어지는 한편 위변조로 인한 리스크까지 제거되면서 총 5811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탁원측은 설명했다.

### ◆실물증권 보관소 매각은

실물증권을 보관하는 일산센터의 매각상황도 관심을 끈다. 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했는데도 매각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물증권, 금 등을 보관하는 지하 금고 위에 지어진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매각 전 본관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금고, 증권보관 등 외에 나머지 공간에 있어서 고양시와 협업해서 인근에 있는 창업지원 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규제 전 분양물량 '급증'... 수도권 3.6만 가구

### 정비사업 신규 분양단지 1순위 마감 "정부 규제 시행시 물량축소 우려"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분양할 재개발·재건축 분양 단지는 24곳, 3만6770가구(9월 1주 기준)다. 지역별로는 ▲서울 12곳, 2만4105가구 ▲경기도 11곳, 9489가구 ▲인천 2곳, 3294가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도권 내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행될 경우 공급 물량 축소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정비사업 신규 분양단지가 시장 흐름을 주도하며 높은 1순위 마감률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정비사업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하반기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한 단지들로 지난 8월30일 '철산역 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는 주말 3일간 무려 2만5000여 명이 몰렸다.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 단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로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 11 일원에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39~84㎡, 558가구 중 2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GTX C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안양천, 삼성산 등도 가깝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라클레시' 679가구 중 71~

84㎡, 1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우며,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분당선 강남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원에 '수원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66가구 중 4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수원종합운동장, 흙플러스(북수원점), CGV(북수원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영산공원, 광교저수지, 만석공원 등 여가시설도 있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일원에 '수원팔달6재개발' 2586가구를 공급한다. 도보 거리에 분당선 매표역이 위치해 있다. 반경 2km 거리에 롯데마트(수원점), 흙플러스(동수원점), 롯데몰(수원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NH투자증권 나무 '럭키박스' 이벤트

NH투자증권 모바일증권 나무는 최초 신규 계좌개설 고객 대상으로 '증권플러스 for kakao' 앱에서 NH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잔고 동기화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랜덤 비트코인과 랜덤 주식 1주가 담긴 '럭키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비트코인은 최소 5000원 상당에서 최대 1비트코인(9월2일 기준 1240만원)이 랜덤 증정되며, 고객의 업비트 계정으로 자동 입금된다. 주식은 신세계, SK, GS 등 증권플러스의 종목진단서비스가 선정된 평가 상위 50종목 중 랜덤으로 증정되며, 신설된 NH투자증권 나무 계좌로 1주가 자동 입금된다. 랜덤 주식과 함께 해당



종목에 대해 1개월간 무료로 증권플러스 종목진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이용권도 제공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암호화화폐 거래소 업비트 및 국민 증권 어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for Kakao'를 운영 중인 두나무와 플랫폼 공유를 통한 제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KB증권 모바일앱

### '폴더블 버전' 출시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앱(MTS) 'M-able(마블)' 폴더블(Foldable) 버전 개발을 마치고, 국내 폴더블 폰 출시 일정에 맞춰 앱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기존 MTS는 언제 어디서나 매매가 용이하다는 편리성과 휴대성을 갖고 있지만 모바일 화면의 특성상 다양한 매매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폴더블 버전은 한 화면에 내게 필요한 정보를 내 마음대로 배치해 한 눈에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한화투자증권, 캡브릿지 그룹 지분 인수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왼쪽)와 캡브릿지그룹 존슨 쉐 대표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 반도체株, 업황 개선 불투명

### "저가 매수 기회" vs "아직 시기상조"

반도체株 3분기 영업이익 감소 전망

코스피 대장주(株)인 반도체주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증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증권사 전문가들이 빠르면 4분기부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될 것이라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추천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업황 개선이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5일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6% 감소하고,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도 93.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업종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IT 기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반도체 판매가 더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지난달 국내 반도체 업체 잠정 수출액도 79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7%가 줄었다. 또 일

본 수출 규제로 D램 고정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달 PC용 D램 DDR4 8기가바이트(GB) 제품 고정가격은 26달러로 한 달전과 큰 변화가 없다.

당초 반도체업종이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업황 회복 시기는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서버 D램 가격은 너무 낮아져 가격이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D램 수출은 수량 기준으로 역성장 폭이 완화돼 6월과 7월 각각 전년 대비 2.55, 8.7% 증가해 물량 면에서 바닥권을 확실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D램 업황은 완만한 우상향 국면이 예상되며, 무역분쟁 격화 우려로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대형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채윤정 기자